

WOMEN IN N.T. - Thurston

Thurston, Bonnie.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 1998.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바울의 부정적인 본문들은 뒤에서 보라

1. 서론 (Introduction)

NKPC의 한인교회 여성지도력 Task Force가 한인교회를 위해 한인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도력, 여장로 안수, 여목사 안수와 채용) 자료를 씌어 있어 내가 여성지도력에 대한 성서적 근거에 대해 쓰기로 자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첫째는, 나는 여자로서 신약성서의 예수님으로부터 소망과 자부심과 자존감을 경험하여 오늘의 내가 되었기에 이를 증거하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나는 73년 전에 남존여비의 문화속에 남존여비 가정에 태어나 여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받고 울며 사시던 어머니의 눈물 속에, 제법 깊이 자리잡아가는 열등의식 속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 속에 끼어 천시 받던 여성들을 받아주시고 대우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던 주님께게서 나도 나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둘째는,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서의 여성문제에 대해 더 공부를 더 해 보고 싶어서였다. 나는 여성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여자 목사로서 성서의 여성문제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나는 학문적으로 너무 모르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매우 복잡한 문제보따리를 연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성서의 여성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그 안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들이 모두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거기에는 성서를 기록할 당시의 문화와 풍습의 요소가 다분히 깔려있어 이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서의 여성을 이해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의 배경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2. **문화와 종교의 배경**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러했듯이 다른 세대에 다른 문화권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억압적인 사회에 해방운동으로 들어왔으므로 종교가 들어와서 번영하게 된 지역의 여성에 대한 문화와 종교의 관념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Thurston은 지적한다. ¹

신약시대의 유대나라 여성들은 회랍-로마 세계에 살았다; 유대여성으로서 체험한 그들의 문화는 헬리니즘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기독교 여성들은 흔히 유대여성들이었다. (예수의 어머니,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혹은 루디아의 근분을 상기해 보라)고 Thurston은 말한다. ²

아브라함 이전(Before Abraham)

기록이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여성으로 이해했었다고 한다. 남성신과 더불어 생긴 일신론(monotheism)은 인류역사 무대의 후세에 온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여신을 예배한 흔적을 7000 B.C. 의 신석기 시대 (Neolithic communities)의 사회까지 추적해 올라가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모습은 25,000 B.C.의 구석기시대 (Upper Paleolithic)까지 추적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긴긴 석기시대 문화에서 인류의 종교는 어머니 여신 숭배였다. 상속권이 여성계열을 통해 넘겨지는 모계사회였고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 가장(matriarchal) 사회였다. 그러나 대강 아브라함 시대, 즉 2,000년 B.C.쯤에 여신종교는 지중해 지역을 지배한 부가장 유목민 무인(patriarchal nomadic warriors)들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들은 땅의 어머니 신을 늘의 신으로 대치하고 B.C. 8세기부터 A.D. 7세기까지 일신, 가부장제 종교개혁(monotheistic, patriarchal religious reform) 은 여신종교를 누르는데 성공했다. 이런 과정이 나사렛 예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보다 훨씬 더 긴 수 천 년 간 계속된 것이다. ³

어머니 여신 숭배는 성교를 출생과 관련짓기 이전에 발전한 것이다. 그 때 여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된 것이다. 출산하는 어머니는 다산 (fertility)을 상징해서 모성의 숭배를 신적인 원리(divine principle)로 출현하게 되었다. ⁴ ??????????

요약해서 말하면 여신예배와 여왕제도는 고대 극동에서는 서로 깊이 얽혀 있었다. 여신숭배와 이름과 토지의 모계계승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여신이 유일한 창조주에서 서서히 부군을 가진 여신으로, 여신이 제2위의 혹은 처녀 (virginal) 로 바꾸게 되었다. 명백히 모계제도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2400 B.C.경에 출현하기 시작한 부계 침략자들에게 적대시 되었다. 그 때부터 마지막 여신성전이 파괴된 500 A.D. 까지 서부의 종교사는 점점 족장제로 되어갔다.

그들의 하늘의 신, 족장의 야웨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된 많은 고대 신과는 달리 유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유대인들의 관계는 땅과 자연에 부착된 농부의 생이었다. 그 지역의 신인 바알주의는 농부들에게 실용적인 종교여서 농사와 농부의 생활을 모르는 히브리인들은 매력을 느꼈다. 야웨가 에집트의 신과 싸워 이긴 것처럼(출 7-12), 이제는 가나안에서 그는 자연의 신인 여신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예를 들면 삿 2:13; 10:6; 삼상 7:4; 12:10). 바알/아세라 종교는 신도들에게 의식을 설정(enactment of ritual)함으로서 신들을 조종하라

¹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 8.

²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 9.

³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 9-10.

⁴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10.

고 가르친 반면에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신의 명령에 따라 완전한 복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syncretism) 은 용납되지 않았다. 여신숭배와의 심각한 문제가 처음 일어난 것이 사사시대(1200-1020B.C.)였던 반면에 그들의 영향을 누르는 데에 몇 세기가 걸렸다. 후에 이것이 유대주의가 된다. 이 투쟁의 흔적과 로마제국의 *magna mater* 종교까지 초기 기독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신약에도 반영이 되었다. ⁵

유대주의 (Judaism)

신약시대의 유대주의는 알렉산더 대왕의 문화프로그램과 희랍철학의 영향을 받은 희랍적 유대주의(Hellenistic Judaisms)였다. 예수님시대와 신약시대의 유대주의는 그 시대에 행해졌던 많은 희랍-로마 종교중의 하나였다.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의 image는 고대 극동의 것과 공통하는 것이었다; 즉 여성의 “자리”는 가정적인 것과 모성적인 것에 국한한다고 믿었던 전통적인 사상이다. 나이 12살 반까지는 아버지가 딸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딸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창 19:4-8의 롯의 딸들의 이야기나 삿 11:29-40의 야벳을 딸의 경우). 그러나 12살 반이 지나면 딸의 의지와 반대로 정혼을 시킬 수 없었으나 정혼은 이른 나이에 시키곤 했다. 정혼과 함께 아버지의 권한은 남편에게로 넘겨졌고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했다. 남자의 일은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었고 여자의 일은 가사였다.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복종하고 여자의 수입은 남자의 것이 되었다. 다처주의가 허용되었고 오직 남편에게만 이혼소송을 제출한 권리가 있었다. 이것이 여자의 위치를 잘 설명해 준다. ⁶

종교적으로 유대여성은 남편에게 제2위 (보조 - secondary)였다. 오직 남편만이 계약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토라(성경)는 오직 자유로운 어른 남자만의 것이었다. 유대의 성직(priesthood)도 남자에게만 국한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토라(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했다. 여자들에게 허용된 안 뜰 한 곳 외에 성전구내에서 어디든지 여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종교재판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했다. 열등한 위치로 말하면 여자는 노예나 아이들의 신분이었다. 랍비 문서는 여자를 남자보다도 열등하게 본다. 수치스러운 기도문에 “나를 여자로 창자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고, “토라를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것이 낫다” 라는 법령도 있으니 이 둘은 여자들에 대한 당시의 태도를 잘 말해 준다. ⁷

Kraybill 에 따르면, 미시나(Mishnah)의 여섯 개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는 전적으로 여성에 관한 규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규례들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남자들을 배타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미시나의 부정에 관한 항목에 보면 월경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의식적인 부정에 관한 79개의 법적 조항들이 있다! 여성들은 공적 생활에서 제외되어졌다. 그들은 집에 예속되었다. 집을 나서서 길거리를 걸을 때,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두 개의 베일로 자신들을 둘러쌌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어머니가 간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알아볼 수 없었다. 엄격한 여성들은 집에서조차 자신들을 베일로 가리웠으며 심지어 서까래조차 그녀의 머리에서 한 자락의 머리카락을 볼 수 없었다! 사회 관습은 남자들이 집 밖에서 여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금했다. 남자들은 감히 결혼한 여자들을 쳐다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길거리에서 그들에게 인사도 할 수 없었다. 여성은 사실상 남편의 얼굴과 다리와 손을 씻어주는 남편의 노예였다. 만일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반드시 남편의 생명을 먼저 구해야만 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남편만이 이혼할 권리를 가졌다. ⁸

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13.

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4.

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5.

⁸ Kraybill, *Upside-Down*, 203-204.

구약의 여성지도자

그러나 다음의 세 여성들은 긍정적으로 선지자로 소개된다. 미리암(출 15:20-21), 드보라 (삿 4:4-6), 그리 홀다 (왕하 22:14-20). 룻은 독자적으로 자신과 시어머니를 부양한 사람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미와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했으므로 찬양받는다. 그리고 Hasmonean 왕국에는 왕고 여왕이 있었다. 여성의 image를 긍정적으로 보는 허부리 성경구절도 있다: 잠 31은 좋은 아내의 재주와 생산성을 찬양한다. 솔로몬의 애가에서도 성적으로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남녀 상호관계(mutuality)를 표시하고 있다.⁹

이따금씩 하나님을 여성상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모세도 하나님은 어머니상으로 묘사했다; “젖어미”(wet nurse- 민 11:12), “너를 낳은 반석” (birth-giver -신 32:18). 호세아는 하나님을 어린이를 먹이시는 분, 걸음마 연습시키시는 분, 상처를 싸매주는 분, 즉 어머니처럼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사야에도 하나님을 생명을 낳는 분으로 묘사되었다 (사 42: 14; 46:3-4). 잠언과 후대의 지혜문학은 지혜(Wisdom)를 여성인물로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 반영한다. 지혜(Wisdom)는 여러모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이다.¹⁰

초기 역사를 재건(reconstruct)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은 자료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고심한다. 신약시대의 유대주의 의 여성관에 대한 자료문제는 더더욱 복잡하다. 라비자료와 (가장 오래된 것이 Mishnah - 유대법에 대한 논문을 모은 것) 비문연구나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라비자료가 아닌 문헌들이 제공하는 정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Ross Kraemer는 주시한다.¹¹

라비들은 여자들은 토라를 공부할 수 없고, 여자는 성적 목적물일 뿐이고, 위협의 소지이며, social disruption 이고, 유혹이라고 보았다. Mishnah는 여자들을 지역사회의 지도층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라비 문서에서 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¹²

그러나 희랍-로마 디아스포라(Diaspora)에서 나타나는 유대여성의 생활의 모습은 아주 다르다. 예를 들면 라비자료는 회당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부터 따로 앉았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Bernadette Brooten의 *고대 회당의 여성 지도자들*이란 책에 비문 (inscription) 연구 분야에서 기초 작업을 했다고 본다. 그녀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이 회당의 경제적인 후원자로 저명했을 뿐 아니라 (특히 로마가 지배하던 소 아시아에서) 회당의 우두머리 자리(제 2세기 Smyrna 시의 Rufina, 제 4세기 Myndos의 Theopempte 와 그리고 장로(elders)자리에 있었다. (여자 장로들은 Thrace, 북아프리카, Malta에서 증명되었다). Brooten은 이러한 직함들은 단순한 경칭(honorific)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신빙성 있게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특정한 회당의 “어머니”(mothers)로 불리웠음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회당에다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Therapeutics (알렉산드리아 외부의 유대수도원 공동체) 사이에 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의식(rite)과 축제에 참석했다는 것이 Philo의 문서를 통해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이라고 Brooten은 피력한다.¹³

희랍-로마세계에서, 특히 바울의 선교 중심지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민사(civic)와 종교적인 책무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여성이 공중생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열렸

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6.

¹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7.

¹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7.

¹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7.

¹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8.

었다고 하는 Ross Kraemer 의 주장은 아마도 옳을 것이다. ¹⁴

그리스주의/희랍-로마 세계(Hellenism/Greeco-Roman World)

유대주의에서와 같이 그리스주의/희랍-로마 세계에서도 여성들의 생은 다양했다. 이 세계는 지역적으로 방대했을 뿐 아니라 그 제국들은 지역적 그리고 종족의 다양성을 가지고 왔다.....

그리스의 여성들 (Hellenistic Women)

알렉산더대제가 군사업무로 출타한 동안 그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사회를 봤을 정도로 헬레니즘 시대에 여성들의 공익사업을 영예롭게 해주는 법령의 공포가 잦았다. 그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그리스 여성들에게 가끔 시민권과 정치적 권력도 주어졌다. 제 1세기B.C. 에 Smyrna의 여류시인 Aristodama 는 Aetolians에게서 명예 시민권을 받았다. 제1세기 B.C.에 Priene의 한 Phile는 여자 치안판사/행정장관(Magistrate)이었고 제 2세기B.C. 의 비문(inscription)에 Histria 에도 여성행정장관 (Magistrate)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들이 재물을 가지므로 그들은 경제적 권력을 행사했고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명인사가 되었다. 점령을 통해 그리스화한 지역에서 희랍의 오래된 도시에 비해 비교적 빨리 여성들의 법적지위가 개선되었다. 예를 들면, 에집트 문서들은 여성들이 구매자, 상인, 주인(lessors), 임대자 (lessees), 대여자 (lenders), 유산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납세자로 등장시킨다. 기혼여성들의 권리도 이 기간에는 더 확장되었다. 신부의 아버지의 권리는 줄어들고 결혼한 딸들은 부모의 권위로부터의 점점 해방되어갔다. 여성들도 남자와 같이 학교에 가게 되었고 경제력이 있는 여성은 가난한 여성보다 더 많은 권리를 느꼈다. ¹⁵

로마의 여성들

로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로마가 헬레니즘의 동향을 따라 결혼생활에서 동등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혼은 부부중의 어느 한쪽이 요구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 이혼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Augustus 법 하에서는 간음은 여성에게만 공법 위반(public offense)으로 적용되었다. 이상적인 아내는 가사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노예들을 관리하고 길삼에 재주있는 여자들이다. 귀족여성들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참여했다. 로마관리의 아내들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자들이 찬양을 받을 때는 남편이나 아들들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 아닌 여자들, 가난한 여자들, 노예 된 여자들의 생활은 매우 달랐다. 로마의 계급구조는 피라미드(금자탑) 와 비슷해서 밑층은 노예들, 전 노예들, 도심지 일꾼들, 농민들 과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작은 중간층은 상인과 공무원들로 채워졌고, 맨 위의 제일 작은 부분은 부유한 귀족들로 채워졌다. 노예 된 여성은 법적으로 “소유물”로 등급이 매겨졌다. 여자노예들은 성적으로 주인에게 사용되었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남자노예들에게 사용되었고 매춘도 시켰다. 결국 로마의 세계에 살았던 유대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시골에 살았을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로마시민 주인들의 노예였거나 자유로운 하층계급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매우 가난한 여인들은 자유스럽긴 해도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살았을 것이다. ¹⁶

희랍-로마 여성들의 종교적인 선택권

종교도 남자들이 관장하고 남자가 사제가 되고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축제를 후원한 여성시민들은 축제 사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남편의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유명세에 따라 아내는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Bernadette Brooten 과 Ross Kraemer 는 여자들이 종교적인 직함을 가졌고 자신들의 종교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 간추려 말하면 희랍-로마세계의 여자들에게 종교적인 선택이 널리

¹⁴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 18.

¹⁵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 20.

¹⁶ Bonnie Thurston, *WomenintheNewTestament*(NewYork:CrossroadsPub.1998), 21-24.

가능했다고 본다.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그중의 일부이다. 여자들이 고대사회에서 종교에서 직책을 가진 사실이 확실하다. 그들의 위치와 권력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정보의 자료가 흔히 한편에 치우친 것들이기 때문이다. 비석문의 증거들(inscriptional evidence)은 여성들이 회당을 관장했고 축제를 조직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했음을 시사한다. 로마의 사제들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던 반면에 Sibylline의 신탁(oracle)과 Vestal Virgins는 공중종교(public religion)에서 유명하고 힘센 직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 직무자 수가 모자랐을 때나 그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꺼려했을 때 여자들이 종교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어야 하며 신약이 여성에게 그리고 여성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읽어야 하는 것이다.¹⁷

3. 바울 서한들 (The Pauline Letters)

Pittsburgh 신학의 신약학 교수 Bonnie Thurston은 바울의 여성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바울은 역사적인(historical) 관점에서가 아니라 목회적인(pastoral) 동기에서 여성의 행실을 말하고 있다. 즉 바울은 그 당시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위해 몇몇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러므로 그가 교회의 여성들에 대해 말을 했을 때 [여성들의 자격을] 규정하는(prescriptive)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설명(describe)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특정한 교회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들이 바울을 친(pro) 여성 혹은 반(anti) 여성주의자라고 결론을 짓던지 간에 Elisabeth Schussler Fiorenza가 지적한대로 바울은 남성중심(androcentric model)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서한을 쓴 바울은 thinker in process라고 하는 사실이다. 즉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변화해가면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바꾸어 말하면 바울의 말들이 특수상황(occasional)에 관한 것이고 조직적(systematic)이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때도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의 견해도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¹⁸ 그래서 바울의 자료에서 얻은 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진술들에도 일관성이 없다.¹⁹

불확실성의 일부는 불확실한 해석과 바울과 여성들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서한들의 조직 연혁(composition history) 즉 서한들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을 무시하는 일과 관계있다. 예를 들면 바울문헌의 집성(corpus)에서 강하게 반 동등(anti-equality)으로 지칭된 본문들은 고전 11:

¹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24-28.

¹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32.

¹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32.

3-16; 고전 14:34-35; 골 3:18-19; 엡 5: 22-33; 디전 2:8-15; 디도 2:4-5 등 여섯 절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에서 Deutero-Pauline 자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2개만이 바울의 글로 간주 될 터인데 그 둘 중에서도 고전 14:34-35은 후대의 삽입 일 것이라 하고, 고전 11:2-16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겠는가를 단정함에 있어 우리가 확실히 그가 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의 말**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바울의 여러 서한들이 바울 자신의 것과 다른 이들의 글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예를 들면 Silvanus 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Sosthenes (고린도 전서), 디모데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 그래서 이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이름과 더불어 자기들 이름으로 편지의 일부를 기록했겠는가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쉬운 방법은 없으나 하나 확실한 것은 Deutero-Pauline 작업(works)은 바울서한과는 따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골로새, 에베소서, 목회서신들은 바울 후대(post-Pauline)의 것으로 따로 떼어 후세대 교회의 여성에 대한 사상으로 [자료] 취급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전 14:34-35은 바울 후세대의 해석이므로 바울의 논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많이들 생각하게 되었다. 진실로 바울의 것으로 알려진 바울 서신 집성 (authentically Pauline corpus)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구절들의 일부가 후세의 부가물(interpolations)이 아닌가를 측정하기위해 원문비판(textual criticism)연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전 14:34-35는 바울 후대의 해석(gloss)이므로 바울의 토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학자들 간에] 널리 모아진 생각이다. 진실한 바울본문으로 판정을 내렸을 때 몇 가지 hermeneutical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로 모든 본문을 그들의 상황(context)에서 읽어야 하고, 둘째로 어느 본문이 표준 normative이고 어느 본문이 문화적으로 조절되었는지(culturally conditioned)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심해야 한다. 셋째로, [여성]문제를 조직적(systematic)인 측면에서 다루는 같은 본문이 다른 곳에서는 같은 주제지만 우연한 참고자료(incidental reference)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바울의 글들이 초대교회 여성의 위치에 대한 자료라고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하다. 한 가지는 바울의 여성에 대한 원칙(principle)과 지시(prescriptive)를 말하는 구절들과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여성들의 할 일을 설명(descriptive)하는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울이 알고 지낸 여성들과 바울이 문안에서 표현된 여성들의 위치를 참조해서 바울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재확인(reconstruct) 하는 방법이다.²⁰

[위의 방법의 예를 들면] 갈 3:28은 교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바울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고전 7장과 11장에서 여성에 대한 바울의 여성에 대한 지시(prescription) 을 조사해 본다. 빌립보의 자료들과 그리고 관계되는 자료들을 사용해서 바울의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간단히 재 확인(reconstruct)해 본다. 그리고 롬16장의 바울의 문안을 자료로 해서 바울시대의 교회에서 여성들이 가졌던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바울의 원칙을 제시한 다음 위의 토론들을 편지가 쓰여진 연대별로 여성의 주제에 대해 바울의 생각의 발전 (Paul's developing thought)을 추적해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²¹

바울이 그이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 존재했었으며 교회에서 지도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서신 후에 기록되었지만 복음서는 예수의 선교의 초기의 여성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이미 교회에는 여성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유니아와 그의 남편 안드로니고 가 있었던 것처럼(롬 16:7)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 아굴라는 저명한 기독교인들이었다. (고전16:19; 롬 16:5). 롬 16장에서 바울은 뫼뵈,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유니아, 율리아와 다른 여성들에게 문안한다. 그의 서한에서 바울은 이들 여성들과 그의 여성들에 대해 그들이 자신에게 종속(subordinate)이라는 뜻이 담기지 않은 동역자라(co-workers)고 부른다. 로마의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빌립보의 Euodia 와 Syntyche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²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33-34.

²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34.

마르다)에 근거해서 Mary Rose D'Angelo는 쌍쌍으로 일꾼들을 소개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경우처럼] 이는 초대기독교의 지도력의 특색을 나타냄이라고 주장한다. 가정교회는 신약시대 기독교회의 요새(stronghold)였는데 이들 중 여러 개를 분명히 여성들이 인도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모인 교회를 “글로에의 집” (고전 1:11) 이라고 불렀고,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히 글로에, 브리스가, 베뢰등 적어도 세명의 강력한 여성들이 있었다. 바울은 “**우리의 자매 압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킵보와 그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문안을 했다. (몬 1:2) 롬16:1-2에 명시된 뵈뵈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고 후원자(patroness)였다. 회랍-로마세계에서 바울이전의 기독교 (pre-Pauline Christianity)에 대해 우리들이 약간 알아본 것 (glimps)에는 그 시대의 평등주의 성격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바울이 사도와 복음전도자로 잘 알려지기 전에 여성들은 이미 기독교회에서 중요한(prominent) 존재들이었다고 하겠다.²²

[롬16:7: 나의 친척이며 한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고전 16:19: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 합니다.

롬 16:3-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롬 16:1 -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16:2 -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16: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6:4 -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6:5 -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a) 열매입니다. (a. 개종자를 가리킴)

16 : 6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6:7 - 나의 친척이며 한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16:12 -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6:13 -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6:15 -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원칙 (Principle -갈 3:28-P. 35-38

갈 3:28의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신학적 진술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한다. 이 성명은 회랍-로마세계의 인종적, 경제적, 성별의 한계(boundary)를 치워버리는 것이다. 이 성명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갈 3:6) 법의 요구(requirement)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난 끝에 나온다. 즉 예수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갈 3:24)는 것이다. 갈3:28은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신념(conviction)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한다. 인종적 혈통(ethnic origin)

²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34-35.

(유대인/할라인), 경제적 신분(status - 종/자유인), 성별(남/녀)을 근거로 하는 가치 판단(value judgment)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²³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equality)과 통일(unity),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일체됨(unity)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큰 문제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하다. 즉 만일 교회가 교인의 완전한 자격을 할례에 둔다면 여성들은 자동적으로 완전한 교인자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울은 조직적(systematically)으로 한 그룹(남성)에게는 호의(favor)를 보이고 다른 한 그룹(여성)은 제외(exclude)하는 입회전례(initiation rite)를 반대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 우월이 인정된 -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 세계에서 이점이 특별히 인상적이다. 학자들은 그 당시 제국에서 기독교가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갈 3:28은 이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겠다. 갈 3:28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후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냐 동등하다고 명시된] 쌍들(pairs)에 대한 존재론적 동등(ontological equality)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쌍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근본원칙과 그리고 바울의 더 실제적인 명령(injunction)과 교회의 시행 두 사이에 틈이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²⁴

갈 3:28절이 여성과 특별히 관련되는 한 "원칙(principle)" 인 반면에 다음의 사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사실(갈 4:4)을 지적하고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를 낳는 어머니로 관련짓고 그리고 법보다 믿음을 더 상위에 놓기 위해 여자 가장 사라와 하갈의 예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함으로서(갈 5:13) 전통적으로 섬기는 일이 여성들의 역할이었던 것을 이제는 교회의 모든 남, 여 교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²⁵

지시 자료 (Prescriptive Source - 고린도 전서

Good description on the city of Corinth (P. 38).

바울시대에 고린도는 40만의 인구를 가진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도시였다. Alfred Plummer는 그의 주석에서 고린도를 "제국의 축소판" (the Empire of miniature)이라고 부른다. 누가에 따르면 바울이 50년초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이미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는데 프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면서 일을 했다.²⁶

유대인들이 더러 있기는 했으나 고린도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고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1:26). 거기에는 40-50명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중 17명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자리를 잡고 전도사역을 시작할 때 그곳에 이미 있었던 여자교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그들과 함께 하였다. 고린도 부근의 겐그레아의 항구도시 근처에 있는 교회의 집사인 비비는 개종된 자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롬 16:1-2).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없을 때는 편지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²⁷

고린도 전서를 쓰게된 동기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고전16:8) 바울에게 "글로에의 집"에서 대표가 와서(고전 1:11) 구두로 그곳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편지도 보내서 바울의 충언을 듣고자(고전 7:1; 8:1; 12:1; 16:1) 한테서 비롯한다. 5:9에 바울은 이미 한번 그 교회에 편지를 쓴 일

²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37.

²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37.

²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37-38.

²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38.

²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39.

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바울에게 온 대표가 “글로에의 집에서 왔다” (Chloe's people-고전 1:11)는 말은 글로에라는 여성의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나 그녀가 인도하는 교인공동체에서 편지가 왔다는 말일 것이다.²⁸

고린도 전서의 본문은 2-5장의 글로에의 교회에서 보고한 건들과 6-15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충고를 듣기위해 써 보낸 편지 둘로 분류된다. 특히 여성에 대해 충고한 자료 (prescriptive materials)는 두 번째 부분에 포함되었다. 그들은 7:1-40; 11:3-16; 그리고 14:34-36이다. 교회가 여성의 위치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로마제국에서의 여성의 위치에다 (억압적) 바울의 갈 3:28의 원칙을 준 후에 문제가 일어났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²⁹

희랍도시에서 여성들의 법적인 동등성은 로마도시에서 보다 더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발전한 것이었다. 문화적으로 고린도는 44 B. C. 이후에 로마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곳의 여자들의 자리는 로마의 것과 유사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7년을 짧게 살고, 출산시 아동사망율도 높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아들을 없애는 경우가 많았으며, 딸을 가진 가정에 신부의 지참금(dowry) 제도가 점점 부가되었다. 그래서 희랍-로마 도시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수가 적었고 여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애기를 가지도록 강요했다.³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직면한 문제들은 성령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태도, 그래서 “오순절” 처신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생겼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자선지가 이 그룹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새로 얻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독신주의를 자처하였을 것이다.³¹

Antoinette Clark Wire 는 그녀의 **고린도의 여성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당시 여성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들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자유를 선언하고 바울의 권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려하고 했을 것이다. 그녀 생각에는 이런 여성들이 성적인 관계를 금하고 (고전 7:1-40),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고,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고전 11:2-16; 8:1-13; 10:1-33), 그리고 공중예배에서 황홀한 경지에서 말하며(12-14)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할 자유를 허용했지만 그들이 그 자유를 공동체에 누를 끼치면서 행사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³²

.....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바울은 남녀사이에 많은 동등성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고전 7:2-5에서 그는 결혼관계에 대해서 남, 녀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

- 7 : 2: 그러나 음란에 빠질 유희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 7 : 3: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 7 : 4: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 7 : 5: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여, 얼마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7 : 6: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7:10-11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한다.

²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39.

²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0.

³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0.

³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0.

³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0-41.

7 : 10: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7 : 11: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7:12-16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할 때 에 대해서 말한다;

7 : 12: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7 : 13: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7 : 14: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7 : 15: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얼마일 것이
7 : 16: 아내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 남편된 이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

7:32-34에서는 불안에 대해서 말한다.

7 : 32: 나는 여러분이 염려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7 : 33: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7 : 34: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마음을 씁니다.
사실은 고린도 7장에서 3:28에서 처럼 쌍을 대상으로 말한다 - 헬라인이나 유대인, 혹은 세례자나 비세례자나 (7:17-19)
7 : 17: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7 : 18: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7 : 19: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나 자유한자나 (7:21-23)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7 : 21: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 그런 것에 마음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7 : 22: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7 : 23: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7:13-15에서 여성들이 헤어지는 일, 남자가 이혼하는 일, 여자가 이혼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

7 : 13: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7 : 15: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얼마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은 성과 관계되는 사회적인 차별을 치워버리고 있다.³³

바울의 문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고전 11:2-16이다: 11:3: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약신학 학자들은 본문이 후대의 삽입이라고 본다. 고전 11:2-16과 엡 5:21-24은 De utero-Pauline이라고 보고 디전 2:13-15은 확실히 그러하다고 본다 (Deutero-Pauline 이다). 바울의 글의 집성(corpus)에서는 남자의 우월성과 여성의 종속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고전 11:2-16절의 본문은 여성들이 교회공동체에서 설치하는 것을 걱정하는 후대 기독교인들의 삽입이라고 보는 것이다.³⁴

³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2.

³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3.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교회공동체에서 여자들이 공공연하게 기도하고 예언도 했다는 사실이다. 여성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대한 논쟁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과 행실을 말하는 것이다. 공중기도할 때에 입는 의상의 적합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the Oxford Annotated Bible 은 제안한다. ³⁵

고전 11:5-7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일이 남자보다 열등함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고대에 남자는 머리를 가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Thurston은 말한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일은 로마남자들이 예배 시에 머리를 가렸고 아우구스투스 시대 고린도에 있었던 머리를 가린 남자의 동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은 경건을 상징하고 보수 종교를 상징했다. 종교적인 행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수건을 쓰는 풍습이 있었다. 상을 당했을 때도 로마 남자는 머리를 가렸다. 고전 11:5-7의 "베일, 영어로 veil" 이라고 해석된 단어 *kalypto* 는 "가린다 (cover)"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베일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런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고전 11:10에서 "그러므로 여자는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문자 그대로 여자는 머리에 *exousia* (권위-authority)를 가지라는 뜻이다. 여기서도 베일(veil)이라고 흔히 해석하지만 회랍어로 권위 (authority)라는 뜻이다. 이런 뜻을 근거로 Morna Hooker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린도교회의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라는 말은 종속(subordination)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던 일에 권위를 가지란 말이 된다.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권위의 상징이 그들의 머리위에 있다는 말이 된다. ³⁶

이와 비슷한 해석을 Jerome Murphy-O'Connor 도 하고 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남, 녀를 동등하게 다룬다. 고전 11:5 5절에서 여자는 예배에서 남자와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남자에게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의 비판을 받는다. 여기서는 베일 이야기가 안 나오고 머리의 길이에 대해 말하고 있음으로 (고전 11:14-15) O'Connor는 그 당시 여성들에게 합당한 머리모양이 아닌 흐트러진 머리모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공동체의 예배 때처럼 행동할 권리를 가졌는데 머리를 단정히 하고 여성들의 새로운 입장(status)을 천사들에게 확인시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한 듯하다. 여성들의 새로운 권위와 동등성은 완전한 여성됨과 관련짓는 것 같다. 단정한 머리모양은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으나 흐트러진 무질서한 머리모양은 불결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민 4:18; 레13:45). ³⁷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첫째로, 남, 녀 모두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을 할 수 있음(고전 11:4-5)을 시사하고, 머리를 수건으로 혹은 긴 머리로 가리는가 마는가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유지와 여성의 몸차림에 관계되는 일이었다. 사실 저자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고전 11:11) 라는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상호 의존 관계를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³⁸

바울이 예배에서 여자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신의 원래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갈 3:28과 고전 11: 11에서 여자들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라"고 자신의 입장을 가볍게 뒤집었을 리가 없다. 딤후전 2:11-12, 벤티전 3:1-6 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전 14:34-35)는 분명히 후대의 삼입입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는 Thurston의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들은 바울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며 바울의 근본사상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The argument could be made that although Paul presuppos

³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3.

³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4.

³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5.

³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5.

ed the public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church assemblies in chapter 11, growing concern over disorderly conduct of public worship led him to withdraw from his earlier position. However, Thurston claims that these verses agree not with Paul's own view as they are represented in I Corinthians and in Galatians, but with those of later writers, like the author of Tim. 2:11-12 and I Pet. 3:1-6. How were Christian women like Prisca (Rom. 1:3; 1 Cor. 16:19) and Phoebe (Rom. 16:1-2), of whom Paul obviously approved, to carry out their function if they could not speak publically? It is illogical to think that Paul would commend women while he silences them. The most logical conclusion about 1 Cor. 14:34-35 is that it does not come from the hand of the apostle Paul and therefore does not represent his opinion. ³⁹

³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6.

재건: 빌립보서 (A Reconstruction: Philippians)

빌립보 교회의 여성들

바울은 주후 50년경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도시밖에서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여성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첫 번째 구라과 교회를 여성개종자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의 기도 그룹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웠다. 이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만족해한 교회였다. 그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두 번 방문했고 (고전 16:5-6; 고후 2:13; 7:5)

40

행 16:12-15: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가는 도시이고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었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빌립보에서는 여성들이 언제나 종교생활의 지도력이어서 그들에게 교회의 뿌리를 내렸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루디아의 집에 모였다 (행 16: 15, 40): “그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행 16:15):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행 16:40).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자신의 선교의 본부를 두었다. 그의 편지는 다른 두 여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 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 4:2-3).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동역자 -fellow workers- (*ergates*)는 순회설교자들을 말했다. 이 용어는 초대교회의 많은 남, 녀 순회설교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여행을 했던 충실한 다른 한 쌍의 부부 선교사였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을 인정했다. ⁴¹

빌립보에서 발굴해 낸 4세기 교회당에서 4-6세기의 여 집사와 여자 수도회 회원 (canoness) 의 명단을 적은 비문이 나왔다. 아가다 (Agatha)는 남편 John과 함께 무쳤고 Posidonia는 Pancharia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수도회 회원(canoness) 와 무쳤다. 이들은 또 한 쌍의 여성동역자들이었다. 신약에서 집사(deacon)란 용어는 빌 1:1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남녀가 비슷하게 수행했던 기능을 말하는 한편 수녀 혹은 여자 수도회 회원(canoness)란 용어는 빌립보에서 오직 여성에게만 사용되었다. 이들은 디모데 1장에서 묘사된 대로 선별된 처녀나 과부들의 수도회를 말한다. ⁴²

⁴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8.

⁴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49.

⁴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0.

결론으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음이 분명하다. 누가복음에 기록된대로 빌립보 교회의 개종자들은 여성들이었고 바울의 편지는 루디아의 가정교회에 했던 것 같고, 그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한 유오디아와 순두게 를 추천한다. 그리고 바울의 서한에 빌립보교회에서 지도층에서 활약하던 여성들을 제한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종교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⁴³

문안인사 (롬 16) (The Greetings: Romans 16)

- 롬 16 : 1: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비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16 : 2: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 16 :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4: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 16 : 5: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 16 : 6: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7: 친척이며 한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 16 : 8: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11: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 16 :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16 :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16 :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16 : 22: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16 : 23: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여성에 대한 현저한 자료중의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바울의 문안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로마서는 주후 54-58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이다. 로마서 16장 문안편지에 26사람의 이름이 포함되는데 그중에 1/3이 여성이고 그중에 7은 이름이 밝혀졌다고 Schussler Fiorenza는 주장한다.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 남자의 순으로 (브리스카와 아굴라 등) 이름이 나오는 점은 그 당시 여성들의 역할이 거기에 나오는 남성들보다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책은 집사와 사도였는데 롬 16장에 이런 이름들이 여성에게 주어졌다.⁴⁴

롬 16장에 기록된대로 여성들이 감당했던 직무의 역할 (functional role)은 집사(deacon), 후

⁴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1.

⁴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2.

원자(protectress-patron), 동역자 (fellow worker), 수고를 많이한(hard worker), 사도(apostle) 등은 매우 인상적이다. 명시된 여성들 중에서 루포의 어머니(16:13),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등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을 말하지 않는다. 16장은 초대교회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시했는데 그들이 한일을 성(gender)을 중심으로 표현하지 않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 교회에서 맡았던 여러 가지 지도력 역할(leadership role)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⁴⁵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라는 책에서 E. Eral Ellis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시한다: 바울이 동역자(fellow wo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동요, co-workers(*synergos*)를, “형제자매 (brothers and sisters)”를 사용할 때 *adelphos*, 즉 종교사역, 전반적으로 교회사역에서의 동요를, 집사 (deacons - *diakonos*)를 사용할 때 순회 설교와 가르침을 주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특수한 계층에서 활약하는 동요를 의미하고, 사도(apostle-*apostolos*)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대개는 12 사도를 의미하지만 바울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를 의미했다. 바울은 롬 16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의미하는 위의 4가지 용어중 3가지를 여성에게 적용했고 4번째것은 여성을 포함해서 사용했다. 롬 16:6의 마리아 - Mary와 16: 12의 드루배나와 드루보사가 그러한 것 처럼 브리스가 -Prisca(16:3) 는 동역자 (fellow-worker)였다. 비비(16:1)는 집사였고 우니아는 사도였고 그리고 모두 교회사역에서 형제였다. ⁴⁶

초대 시대 교회사에서 교회사역은 카리스마적이었고 제도(institutional)가 아니었다. 지도력(leadership)은 은사(gift)의 수행(functional)이었지 공직(office)이 아니었다. 신약시대에는 “성직자들”(ministers)은 예수를 도운 사람들, 즉 사도들이나 공동체에서 특수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사역이라 함은 공직(office)으로 되기 이전에 봉사의 자세(attitude of service)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울의 교회에서 역할(role)을 논할 때 공직이 아직 아닌 봉사자(servanthood) 와 지도력의 여러 가지 혼합현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은 후에 개발 된 것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롬 16에 명시된 유명한 두 여성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⁴⁷

롬16:1-2은 비비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롬 16 : 1에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비비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16 : 2: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라고 바울은 비비를 소개한다. 바울은 고전 16:10-11에 디모테를 소개했던 것처럼 비비를 추천한다. 비비 자신이 바울의 편지를 배달한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비도 순회자중의 한사람이었을 것이다. 비비는 성 (gender)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교회사역의 활동을 말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집사(deacon)으로 소개되었다 (교회의 집사, 카도릭의 부제). 집사는 많은 사람을 돕는자, "servant," "helper," "minister," "deacon,"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직과 지도력을 행사했던 여성인듯 하다. 후대에 발전시킨 집사에 대한 직무를 딴후 3:8-13에 기록되어 있다. 교회여성들은 이런 위치에서 교회를 섬겼다. 여자집사들은 남자 집사와 비슷하게 공동체를 인도하고, 봉사하고, 가난한이들을 심방하고, 여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세례를 돕고, 사회봉사를 담당했다. 많은 사람을 돕는다 (helper of many)는 라틴어로 *patrona* 인데 이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지도자 (leader),” 회장(president),” 교장(superintendent),” “혹은 후원자 (patron)” 였다 (동사형을 살전 5:12과 딤펴전 3:4-5-5:17). 그래서 비비도 후원자였는데 아미도 루디아 처럼 비비도 교회와 공동체를 후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 같고 밖으로 정

⁴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3.

⁴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3.

⁴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3-54.

부나 법정과 관련해서 교회를 대표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⁴⁸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의 뵈뵈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바울이 높이 평가하고 추천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바울사도의 편지를 로마교회에 전달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것이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고 소개되었으니 분명히 그는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고 후원하고 거기에서 사역한 그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뵈뵈는 이방인의 신분이었으나 바울의 기독교인 자매였고 기독교인 공동체의 훌륭한 일원이었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인 가족의 일원이었다. 뵈뵈는 처녀였거나 초대교회의 지도역할을 담당한 과부였을 것이다.⁴⁹

다음사람은 롬 16:7의 우니아 (Junia) 혹은 julia라고 불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논쟁이 있지만 Bruce Metzgers에 의하면 이는 여성이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속한다는 것이다. 여자가 사도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분명히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는 분명히 여성이라고 Bernadette Brooten은 주장한다. Jerome (340-420) 과 John Chrysostom (344-407)은 다음과 같이 말해 그가 여성임을 입증했다: “사도가 되는 일은 엄청난 일이다. 더구나 뛰어난 사도가 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여성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사도라는 명칭을 받았으라!”⁵⁰

뵈뵈와 선교사 부부 안드로니코와 우니아에 이어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보낸다. 대개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 앞에 나오는 것을 보아 남편보다 그 유명도와 사회적 위치와 그녀의 역할이 더 큰 것을 시사한다. 이들 부부는 행 18에 기록한 대로 그라디오스 (Claudius)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할 때 함께 쫓겨났다.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미 거기에 와 있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 가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세웠다 (고전 16:19). 에베소에서 그들은 아폴로를 만나 그를 가르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행 18:26):⁵¹

바울은 열심히 일한 마리아에게 문안을 보낸다(롬16:6).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한다. 이들 여성들도 자신들의 교회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롬 16장은 초기에 기독교를 전파함에 있어 여성들의 지대한 역할과 수고와 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본문이 잘못 읽혀지고 잘못 해석되고 빈약하게 해석되고 무시되어온 것이다. 이들 여성들은 바울이 세웠거나 알고 있는 교회들에서 남성들과 같은 봉사와 지도역할을 한 사실을 여실이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⁵²

결론 (Conclusion)

Thurston은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남성중심이다. 그러나 자신이 개척했거나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바울의 글에서는 여성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글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마도 문화적인 면에서 여성의 역할에 제한을 두었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바울의 원칙이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이다.] Thurston이보는 바울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바울에게

⁴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5.

⁴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7.

⁵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7.

⁵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8.

⁵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58.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바울은 과거의 문화의 전통과 앞으로 새로운 전통이 될 것 사이에서 긴장을 체험하고있는 사람이었다. 그 결과로 Constance Parvey 가 말한 대로 신약에서 여성에 대한 신학과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바울에게서 우리는 혼동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한편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평등신학을 강조하지만(갈 3:28)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여성을 종속(subordination)으로 이끄는 시행을 제안한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동등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status quo 윤리를 시행하는 것 같다.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에서의 전통의 벽을 허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성의 장벽이 바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다. Elaine Pagels가 말하는 대로 바울은 인간해방에 대한 꿈을 가졌지만 모호성이 없이 이를 지속한 것은 아니다. 그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울이 여성들과 노예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지만 그들을 정복하는 사회구조에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이런면에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사회의 무질서에 대해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준 시행에 대해 대대로 교회지도자들은 고정되어 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Thurston은 바울이 완전히 동등(egalitarian)도 아니고 반여성주의자도 아니라고 본다. 고전, 빌립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여성 지도자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동역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여성들의 지도 역할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고마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면에서라던지 사회에서의 교회의 명성문제가 달렸을 때는 바울이 동등 신학과 자기시대의 문화 사이에 갈등을 체험한 것 같다.⁵³

결론으로, 이방인에 대한 풍습을 포함해서 유대사람들의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개혁을 체험한 바울의 새로운 사상과 신학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바울의 원칙을 볼 때, 바울 자신의 여성들과의 동역관계를 볼 때 바울은 남존여비나 남성 우월주의 사상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동등한 지도자의 자격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이 몸소 실천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Thurston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신학과 문화사이에 갈등을 느껴 때로는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때로는 문화와 풍습에 따라 말을 했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이 아닌 제안이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지도자들과 -남녀를 막론하고 - 같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인정해야하고 진리와 문화의 풍습을 가려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할 것이다.

4. **복음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The Gospels: Mark and John)**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활동하신 것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 복음서의 본문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견해와 복음서의 독자들인 그 당시 교회공동체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인[문화와 풍습]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다.⁵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성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자료와 예수그리스도가 여성을 언급하시거나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반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논설, 비유, 말씀등이 있다.⁵⁵

⁵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0.

⁵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4.

⁵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5.

마가복음의 여성들

마가복음은 아마도 주후 65-75년 사이에 로마에서 박해당하는 기독교인을 위해 로마에서 집필되고 주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⁵⁶

마가복음 기사에 나오는 군중의 거의 4분의 1이 여성이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13절에서 여성들이 이야기의 중심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막 15:40, 47; 16:1)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막 5:37; 9:2; 14:33)과 더불어 나란히 주님의 측근(inner circle)이었던 것으로 보아 주님을 따른 군중은 항상 남, 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선생님이요 그의 공적인 역할을 보고 체험했을 것이다.⁵⁷ 그들은 “경악(amazed)”하고, “따르고(followed), 예루살렘입성과 집자가로의 여정(call for Jesus' crucifixion) 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주님을 따른 군중을 상상해 볼 때 여성들이 그 가운데 항상 있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⁵⁸

더더욱 막 15:40-41에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와 살로메가 주님을 "따랐다(follow),"그리고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던 자(provided)”고 기록했는데 이 때 “따르다(follow)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제자도(discipleship)를 의미하는 말이다. 막15:41에 사용된 “따르다(follow)”의 희랍어 *ekolouthoun* 은 안드레와 시몬(막 1:18) 반응을 그리고 레위의 반응(막 2:14)을 말할 때 사용한 같은 단어이다 (“따라갔다, 좇으니라-follow”). 그리고 막 15: 41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에서 “섬기다 (provided)”라는 말의 뜻은 “성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다, 섬기다 (minister, serve-*diekonoun*)”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섬기다(provide)”란 용어는 예수그리스도 자신의 목회(ministry)와 제자들에게 요청한 그의 목회(ministry)의 중심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에게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여자들의 역할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막 15:41에 다른 여자들도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으므로 갈릴리의 제자들의 circle에 여성들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실 때에도 여성들이 함께 있었음이 분명하다. 막 4:10-34 (7:17), 9:28, 10:10 에 주님께서 사사로운 지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주님은 항상 사사로운(private)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주시곤 했다. 4:10에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에서 주님의 inner circle 에는 12제자 외에도 더 있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은 마가복음에 “그의 제자 (his disciples-*toisidiois mathetais*)”란 용어는 43번 사용되었고 “열둘 (the Twelve)”란 말은 10번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막 4:10과 15:40-41은 우리가 주님께 모여든 군중속에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disciples)”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성들이 끼여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마가복음에서는 여성제자들이 오히려 남자 제자들보다 낮게 소개되고 있다. 남자 제자들이 주님의 인간됨을, 그의 목회/선교(mission)를, 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막 6:35; 6:49, 52; 8:16-21; 9:32-36; 10:35-45; 13:1). 주님과 급격(sharp) 했고 (막 4:38; 5:31; 8:4; 14:4), 그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막 7:36). 막 8:27-9:1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고백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는 주님의 책망(막 8:32)에서 여실이 들어난다. 주님의 남자 제자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팔아 배신했고(막 14:10-22), 주님이 잡히실 때

⁵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6-67.

⁵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8.

⁵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8.

⁵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9.

잠자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막 14:50-52) 주님께서 의회 앞에 서서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확신할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부인하기에 바빴다(막 14:53-72).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거기에 분명히 존재했던 남자라곤 그를 십자가에 다는 로마 군병들(막 15:16)과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강요받은 구레네 시몬(막 15:21)과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막 15:39) 뿐이었다.⁶⁰

그와 반대로 마가복음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제자도의 모델이었다. [몇 명의 예를 들면]주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니 그 여자는 그들(사람들)의 시중(served-diskonei)을 들었다(막 1:30-31)고 했는데 이는 가장 으뜸가는 제자도의 대표적인 행동이었다.⁶¹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와 예수

막 5:24-34의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자는** 네 가지 관점에서 소외된(marginalized) 여성이었다: 여성이라는 점, 변호해 줄 남자 근친이 없었던 점, 치료에 돈을 다 써서 경제적인 자원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에 대한 금제(taboo)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레 15:19-30에 월경을 하는 여자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는데 이 여자는 "불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가 만지는 사람이나 어느 것이나 불결하게 만들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녀는 집을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과 성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종교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었다. 사실상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사회에서 제외된 여인이었다. 막 5:25-34과 레 15:19-20을 보라.⁶²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막 5:27). 그래서 솔선해서 그에게로 가기로 작정한다. 어떤 여성도 공공한 자리에서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도 말을 붙여도 안 되는 사회적인 풍습과 피에 대해 금지하는 풍습 모두를 위반한 것이다. 자신의 불결한 상태에서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결과로 나음을 받는다(막 5:29).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군중에 밀리는 판인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을 나무라고 그 여인은 군중 속에 슬쩍 숨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했다고 사실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선다(막5:33).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다. 왜냐하면 첫째로 공공한 자리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다. 둘째로, 그녀를 “딸”이라 부르시며 가족으로 취급 하신다(막 3:31-35).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했음을 확실히 밝히신다. 그녀의 솔선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사회(communitiy)와의 관계에서 옹근 사람으로 회복된다. 막 5:24-34은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풍습에 묶인 한 여인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온전한 몸과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것 모두를 깨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⁶³

수로보니게(Syrophoenician) 여자와 예수

막 7:24-30의 **수로보니게(Syrophoenician) 여성**은 예수를 그의 바른 태도로 회복시킨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두로지방으로 들어가 한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기대하지 않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방여인과 만나게 된다. 그 여인은 유대인에게 빛나간 성(wrong sex)이고 (여자), 빛나간(wrong) 국적신분(naional/ethnic status-헬라인)을 가진 자요, 그리고 빛나간 인종/종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에게 수로보니게는 불미스러운 인종적/종교적인 암시를 주는 이름) 자였다. 그녀는 딸을 가진 독신 어머니였다. 결혼지참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딸은 부채였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귀신들린 것이었다. 혈루증 걸린 여자의 경우처럼 그녀는 남자가 없는 듯 했고 자신이 스스로 믿음으로 (in faith) 와서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렸다. 이번에는 애타주의적인(altruistic)요청을 가지고 가기 딸을 위해서 온 것이다.⁶⁴

⁶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9.

⁶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69.

⁶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1.

⁶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1-72.

⁶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2.

막 7:27의 주님의 반응은 복음서에서 가장 문제되는 기독교론적 문장이다. 이는 이방인/무교도(heathen)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을 반영하고 예수를 완전히 인종차별주의자(racist)로 그리고 전혀 배려가 없는(uncaring) 인물로 묘사한다. 이는 주님께서 이미 “외부인(outsider)“을, 귀신들린 자를 데가볼리에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막5:1-20) 더더욱 문제된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은 진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고 “개(dog)”는 애칭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본문을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Thurston은 마가와 그의 공동체가 이 문장을 보존함으로써 놀라운 솔직한 심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예수를 소개한다. 그는 어떤 집에 혼자 시간을 가지려고 들어갔는데 여자가 찾아온다. 그는 자신의 배경에 둘러싸여(circumscribed) 날카롭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여인도 재빨리 솔직하게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그를 주라 부르면서 자기의 접근방법을 관철시킨다. 그녀는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Gentiles)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지적한다 (막7:28). 주님은 풍습이 가난한이를 돕는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바(막2:23-28; 3:1-6) 있는데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셨음인지 그녀의 정확한 답변과 지혜를 인정하셨음인지 멀리서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심으로 그녀 딸의 병을 낫게 하신다. 그녀는 이방인 여인의 지혜와 지성으로 예수님을 얻은 것이다.⁶⁵

마가는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온 방법과 정 반대되는 그 여인이 온 방법을 비교하려는 것 같다. 종교지도자들은 폐쇄적이고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예수께 접근했지만 여 여인은 빈손으로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으나 예수께 자유롭게 접근해왔다. 그녀의 딸을 낫게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 시면서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사이의 벽을 허무셨다. 이는 오직 그녀가 절대로 그래야 함을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이방인선교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마가와 그의 공동체는 본문을 보전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접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녀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Sharon Ringe는 그 여인은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증거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taboo와 boundary를 넘으시도록 그와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예수님께 섬김(minister)을 했다고 주장한다. Ringe 는 또 수로보니게(Syrophoenician) 여성은 예수가 치유하고 그의 사회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초월하시도록 주님을 자유롭게 해 드렸다고 주장한다. 수로보니게(Syrophoenician) 여성은 잃을 것이 없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남을 위해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용기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⁶⁶

옥합을 깬 여인과 예수

막14:3-9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막 14:1-2, 10-11에 나오는 예수를 잡으려는 남자들의 음모에 완전히 반대되는 여성의 아낌없이(extravagant love) 드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막 14: 3-9에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중했으면 4 복음서가 다 한결같이 자세히 기록한 몇 이야기중의 하나이다.⁶⁷

이같이 모범적인 행동을 한 여인도 주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주님께 접근한다. 주님은 여기서 이미 그 당시 나병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병환자하고 마주앉아 식사를 하심으로 그 당시의 문화- 종교적인 taboo(레 13장과 14장)를 깨고 있었다. 그녀가 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녀는 아마도 저녁식탁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의 한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버림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식탁이었으므로 이는 매우 특이한 저녁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에는 항상 여성이 끼여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님께서는 그이 친교의 circle 를 매우 광범위하게 하신사실을 볼

⁶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2-73.

⁶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3.

⁶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4.

수 있다.⁶⁸

이 무명의 여성은 (남자가 없는 듯한) 일 년치 월급에 상당한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당시 극동지역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왕이나 제사장(priesthood) 같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택함을 받음을 의미했다.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예언자의 근본역할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기름부은 행동은 예수가 그리스도(메시아 혹은 기름부은자)라고 하는 예수의 위치에 대한 그 여성의 상징적인 고백이었다. 이런 허비하는 행동에 대해 식탁에 앉은 다른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귀중한 연중행사이지만 특정한 인물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이 여성의 행동을 변호하신다(14:6-7).⁶⁹

어떤 학자들은 막 14:8-9은 주님의 십자가형을 예시(foreshadow)하고 초대 기독교회 공동체의 여성의 유명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4:8-9) 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예언자의 기름 붓는 행동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임을 이해한 첫 사람이었던 것 같다. 시체에 기름 붓는 일은 “여성의 임무”였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안식일 새벽 미명에 여성들은 향유를 가지고 첫 번째로 무덤으로 간다 (막 16:1-2).⁷⁰

결론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이 현저하게 출현한다. 그들은 기적의 소극적인 수혜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충실히 반응하는 자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사도적인 파송을 받은 자들 (막 16:7)이다. 마가가 이해한 제자도는 따르는 것, 섬기는 것, 고난당하는 것 - 이런것들에는 여성들이 최고의 모범이다. 여성들이 따르고, 섬기고 고통받는 것 뿐 아니라 마가의 이야기에서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이를 훨씬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난다. Mary Ann Tobert 은 마가의 공동체에는 강력한 여성 지도자들과 role model 들이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짓는다. 주후 7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서 그리고 희랍-로마시대의 유행하던(prevaling) 태도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 공동체에서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부여하는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보겠다. 여성들은 예수의 공생애(public ministry),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산 증인으로 묘사되었다.⁷¹

⁶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5.

⁶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5.

⁷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5.

⁷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7.

요한복음의 여성들

요한복음은 경전 복음서들(canonical Gospels)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약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책이다. 신약에서 가장 뒤늦게 쓰여진 책이기도 하다. 복잡하고 다문화적인 사고구조가 엿보이는 책이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는 매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90%의 내용은 공관복음서와 유사한 것이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사역(ministry)이 주로 갈릴리 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요한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한복음은 희랍철학, 신비철학(Gnosticism), Hermetic 문학 과 Mandaeanism의 용어들을 사용으로 보아 “그리스사람들을 위한 복음” 이라고 불려진다. 그러나 요한의 사고는 철저히 유대인의 것이다.⁷²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생각해 왔다 (요 21:24). 그러나 장로 요한, 마가요한, 나사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등이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Diaspora 회당에서 공부한 유대종교의 전통에 유식한 유대인으로 희랍사고와 종교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요한복음은 여성들이 여러모로 자유를 누리던 도심지에서 형성된 글

⁷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8.

일 것이다.⁷³

요한은 제자도(discipleship)를 사도(apostleship)직보다 더 높인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저명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일곱군데 나온다 (요 2,4,8,11,12,19,20).⁷⁴

“제4복음의 여성과 현대교회의 여성들의 역할“이란 책에 Sandra Schneiders 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4가지 중점을 기록하고 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서 여성들이 예수를 적대하거나 그를 믿지 않거나, 버리거나, 배신하는 기사가 없다 (다음의 기사들과 비교: 요 3:10; 9:24-34; 12:4-6; 13:2,27-30, 37-38; 16:18, 31-32; 18:1-11; 20:24-25). 둘째로, 요한복음의 여성들은 고도로 개체화(individuated) 되어있고 여성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함축성있는 것(nuanced)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공동체에서 기독교 여성에 대한 체험일 것이다. 셋째로, 요한복음에서 여자들은 비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요4장에서 사마리아여인은 복음전도자 역할을 한다. 11장에서 마르다가 자기 오빠의 장례행사를 관장한다고 보겠다. 20:1에 막달라 마리아가 밤중에 혼자서 모험한다 [무덤으로]. 넷째로, 여성들이 남자와 관련해서 소개되는 경우가 흔치않다는 점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Clopas의 마리아 외에. 요한은 여성의 역할을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남자의 것과 다르지 않게 제시한다.⁷⁵

예수의 어머니 (요 2:1-11):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선교 처음과 나중에 (십자가 밑에)나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P. 80-81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사이 지방을 다니시다가 대낮에 사마리아에 들러 야곱과 관련있는 우물가에 머무신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가 아침과 저녁에 물을 갖지 않고 한 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은 짐작한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놀라게 한다. 유대 남자는 공공한 자리에서 외간 여자와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특히 랍비들은 요람에서부터 월경하는 불결한 여인들이라 생각해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피했다.⁷⁶

사마리아와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깊은 적대관계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죄인과 같이 취급받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들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차별했다. 이 진부한 선입견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분리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함께 먹지도, 예배드리지도, 결혼하지도,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있고자 하지 않았다. Funk는 다음의 사실을 지적한다. "갈릴리의 순례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종종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했다. 이 적대적인 지역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트랜스-요르단이나 베레아 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여행하다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 여리고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도록 했다."⁷⁷

[예수는 이런 사마리아인 특히 여성과 상대를 함으로서] 문화적(cultural)인 그리고 민족적(et hnic)인 금기(taboo)와 종교적인 금지(prohibition)를 모두 깨고 생수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다. 그

⁷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79.

⁷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0.

⁷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0.

⁷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3.

⁷⁷ Robert W. Funk, *Honest to Jesus* (SanFrancisco:HarperSanFrancisco,1996),175.

리는 동안 그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물으시고 그녀에는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요 4:16-19).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이 그녀의 품행을 의심하게 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동안 그 여인은 예리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 말씀에 충명하게 반응한다(요4:20, 25).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요한의 기독교론의 특색을 나타내는 “나는 (I a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요 4:25-26). 그 여성은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 아는 바를 전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된다. 그래서 실상 그녀는 [사마리아의] 첫째 사도/복음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⁷⁸

Jesus encounters a Samaritan Woman who has come to draw water in the heat of the day because, it is assumed, she would be unwelcomed t the well at the usual times of drwaring water (morning and evening). Jesus surprised her by asking for a drink. Jewish men did not speak to women in public. Jews viewed Samaritans with distaste, and in fact the rabbis especially shunned Samaritan women, whom they viewed as perpetually unclean. Jesus breaks both a cultural and an ethnic taboo and a religious prohibition and begins a discussion about "living water," during which he asks about her "husbnd" and remarks that she has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you have now is not your husband" (4:16-19). For the first time in the Gospel, to her Jesus both reveals his messiahship and uses the "I am" self-designation that characterizes john's Christology (4:25-26). The women returns to her vilage, shares what she knows of Jesus, and leads many Samaritans to believe in him - thus in effect fulfilling the role of the first apostle/evangelist.

The Samaritan woman is, in fact, one of the most theologically informed person in the Fourth Gospel. She knows the regulations about ritual purity (4:9), ancestral traditions of Israel (4:12), the necessity to worship at a valid temple (4:19-20), and the expectation of a Messiah (4:25). P. 83

사실 이사마리아 여성은 제4복음서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견문이 넓은 사람 중의 하나라고 Thurston은 이 칭찬한다. 그녀는 의식(ritual purity)의 정결 규제(요 4:9),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요 4:12), 타당한(valid) 신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요 4:19-20),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요 4:25)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 신학에 정통했다.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녀구별 없이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앞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듯이 이 여인을 토론의 진지한 대상으로 삼으셨다. 진실로 이 여성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이 여성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 새로 발견한 것을 전했을 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여인의 말을 듣고 믿어주었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매춘부의 증언을 신중하게 여겼을까?⁷⁹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그가 문란한 여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Thurston 은 주장한다. 그는 언어 해석에서 다른 뜻을 찾는다. 즉 예수님과 그 여성을 희랍어가 아닌 아람어로 대화를 했을 것이다. 70인역 성경은 아람어로 "남편" 혹은 "주인(owner)" -"ba'al"-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 희랍어로 "남편 (husband)"-*aner* -를 12번이나 사용했다. (창20:3; 출 21:22; 신 22:22; 24:4을 보라). 예수님께서서 그녀의 바알 (ba'als)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무엇을 의미했겠는가?⁸⁰

지방신 예배를 묘사한 왕하 17:24-42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아래의 본

⁷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3.

⁷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3-84.

⁸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4.

문이 말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신을 섬겼다].

왕하 17:24-32: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29) 바벨론 사람들은 수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30)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31)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2). 그래서 예수께서 그 녀에게 잡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남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 “너는 다섯 신에게 붙잡힌바 되었었고 지금 믿는 신도 진짜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Thurston은 반문한다.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녀는 예배처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주제가 거짓 신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녀의 반응은 옳은 것이었다.⁸¹

유대인들(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반대했고)은 요 2:18-20에 예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요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고, 이 소식을 자기 동네에 전하므로 진짜 선교사 역할을 담당했다. 4:39에 그녀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 요 4:39). 문자 그대로 그녀의 말 때문에 (*episteusan dia ton logon*), 이는 예수께서 요 17:20에 그가 기도했을 때 사용한 "*ton pisteuonton dia tou logou auton*" 과 같은 표현이다. 더욱이 요 4:38에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apostellein*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제자들이 수확을 거두도록 여성이 씨를 심으러 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에서 사용된 선교용어이다. 공광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물과 배와 집을 뒤에 버려둔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물가에 물동이를 남겨두고 갔다. 그녀가 행한 일은 사도직의 모범행위이다.⁸²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8:4-5)라고 물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신 22:22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 여기에 여인을 끌고 온 사내들은 법이나 정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더라면 현장을 잡았으니 남자도 함께 끌고 와야 했을 것이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Augustine 은 여자를 비열한 죄인으로, 그리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과 같이 (*sin meets mercy*) 예수를 자비의 본보기로 하는 해석이나 주님의 해결방법이 법적인 처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한 칼빈의 생각은 모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여인을 비인간화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Thurston은 비판한다. 위의 해석방법들은 모두가 예수께서 고소하는 자들이나 고소당하는 여인 모두가 옛날의 묵은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고 계심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덧붙인다.⁸³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남성들의 음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신다. 그는 자비로 그녀의 처참한 지경에 반응하시면서 고소자와 그녀 모두가 완전한 생에 이르도록 초청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셨다 (요 8:11).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의 근본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요 8:15에

⁸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4.

⁸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5.

⁸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6.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의 말씀으로 이를 잘 설명하고 계신다.⁸⁴

마르다, 마리아와 예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대화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1장은 주로 나사로를 살린 기사로 많이 이해한다.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시작한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라 기보다 두 자매들이 사는 동네로 소개된다. 그들의 오빠 나사로 보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더 유명했던 모양이다. 때로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 자매들은 자기오빠의 병에 대한 소식을 예수께로 보낸다 (요 11: 3).⁸⁵

마이라가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르다가 예수를 마중 나간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본문 이야기의 핵심이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확실히 표현했을 때 주님은 “내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신다. 그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7) 라고 고백했을 때 이는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숙성된(fully developed) 고백이다. 마르다의 고백은 공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그런 고백이다. 요한복음의 서두부터 예수가 메시아 됨을 사마리아 여성에게 나타내시고 끝에 가서도 역시 여성 마르다가 이를 고백한다. 그의 동생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눅10:39에서 그리고 요 12:3에서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진다. 마르다의 고백과 마리아의 정서적인 호소에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다. (요 5: 25-29와 비교하라).⁸⁶

곧 이어서 12:1-8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기사가 요한의 해석(version)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마르다는 시중(served-*diakonei*)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시중들다, serve (섬기다)는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집사-deacon”이다. 이는 마르다는 신앙고백을 하고 활발하게 시중/섬김(serve)으로 확실하게 제자도(discipleship)에 들어갔다(막 1:30-32와 비교하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는 이미 어떤 기독교 공동체에는 집사직이 있었던 것 같다. 사도들이 손을 얹어 집사들을 안수 했던 것 같다 (행 6:1-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하니라”(행 6:6). 집사가 하는 일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diakonein trapezais*]이라고 같은 동사를 써서 표현되었다.⁸⁷

발을 씻는 모습은 마가복음의 것과 다르지 않다. 주님이 죽음에서 일으킨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제공한 놀라운 후한 대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매우 적절한 대접이었다. 공공한 장소에서 머리를 풀어 내리고 예수 발에 손을 대는 이상한 행동이 예수에게 불쾌감이니 혐오감을 주지 않았다. 마리아의 기름부음(anointing)은 예수를 위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제자도(discipleship)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준 일 (12:7)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주님은 이를 공공연하게 선언하신다(요 12:30-36). 또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닦았다. 이 행동은 C.H. Giblin이 지적한대로 이중예고를 하고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패하지 않은 부활(rising incorrupt)을 예고하는 것이다. 예수의 몸은 부패할 몸이 아니기 때문에 향유가 몸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기름부음(anoint)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요 13:14-15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가 된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접근해 사랑을 표현할 권리를 수행한 것이고 유다가 이 행동을 비판했을 때 주님은 그녀의 이렇게 할 자유를 확인해 주셨고 그녀를 제한하려고 하는 남성을 꾸짖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마르다는 확실하게 기독교적 고백을 한 믿음의 전형(representative)으로 제시되고 마리아는 숭선하므로써 제자

⁸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7.

⁸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7.

⁸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7-88.

⁸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8.

도의 실천을 한 예가 되는 것이다.⁸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요 20:1-18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다. 무덤을 텅텅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간다. 그들도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와보고 돌아간다. 남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본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알릴 것이 없었다. 마리아는 무덤에 남아 온다. 그녀는 천사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녀가 보고 들은 것과 주님께서 주시 message를 전하라고 파송을 받는다. 그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를 제자들에게 전달한다 (요 20:11-18).⁸⁹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거한다 (요일 1:1-3과 비교하라). 그래서 막달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마리아의 격력은 나무랄 데 없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적인 증인(apostolic witnesses) 들 가운데 최고의 영예를 차지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여러 차례 나타났지만 그러나 극히 드물게 알아주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apostle to the apostles). (그녀는 확실히 사도의 자격에 대한 바울의 정의에 미치는 사람이다). 요한은 사실 여인을 pascal mystery의 보증인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가혹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극진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치욕과 고통속에 죽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무례한 처형 후에 그의 무덤이 더럽혀질 가능성을 보았다. 이러한 격정을 제자들과 나누었을 때 제자들은 이런 그녀에게 무관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앞에서 기다리면서 울고 있었다. 그녀의 불굴(persistence) 이 보상을 받은 셈이다.⁹⁰

다시 사신 주님께서 부활의 소식과 이를 전하는 수행(effect)을 여성에게 맡기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 이 슬퍼하는 여인의 존재가 중요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잠시 중단하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할 말을 주셨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 20:17).

O'Day에 의하면 첫째로, 요한복음에서 사랑과 상호관계(mutuality)가 윤리의 근본으로 소개된다. 정복(dominance)과 복종(submission)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giftedness)를 발전시키고 사용하기보다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loving relationships)만이 기독교인들의 공동(community)체로 정의된다 (요 13:35-**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상호관계(mutuality)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장려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인 공동체의 일원은 공동체라는 조직의 구성(organic unit)의 지체들이다. 그들은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서부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반대로 상호의존관계(mutuality) 에 가치를 둔다. 개개의 가지에게 특별한 status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하나에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한다. 요한복음에서 사랑과 상호의존관계는 정복(dominance)도 개인주의도 아니고 제자들이 구체화(embody)해야 할 덕이다.⁹¹

둘째로,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궁핍

⁸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89.

⁸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0.

⁹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0.

⁹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1.

적이다. 여성들을 예수의 독자적인 추종자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여성들은 비전통적(unconventional)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을 예수께서 인정하는 것 같다. 때로는 이를 반대하는 남성들을 제압(override) 하기도 했다. 요한복음은 모범적인 제자로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전도자/사도의 역할을 한 여성들과 함께 시작하고 끝마친다. Raymond Brown 이 지적한 대로 제자도(discipleship)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primary) 부문(category) 이고 요한복음은 여성들을 가장 으뜸가는(first-class) 제자들로 소개한다. 여성들과 남성들은 말씀의 대리인(agent)으로 파송받았고 예수의 진정한 가족으로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다.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전도자, 여자, 남자 모두가 제자도를 삶(in the life of discipleship)에 있어서 대단한 동등성을 과시했다고 결론지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⁹²

결론으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바울보다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바울이 여자들에 대해 토론함에 있어 모호함을 보이는 곳에서 복음전도자(evangelists)들은 그들의 이야기에서나 예수의 말씀을 보고함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여자들을 소개한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유래한 공동체에는 지도 역할을 담당한 강력한 여성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여성과 예수에 대한 자료들은 복음전도자들이 알고있는 예수의 전통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에 반영된 전통을 전통을 시사하는 것이다.⁹³

기독교사 초기가 그 후대 보다 더 남녀 동등주의(egalitarian) 였다고 본다. 그래서 주후 70년대에 쓰여진 마가가 교회사 초기의 동등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이 마가복음과 같이 초기의 동등성을 지니고 있음은 요한이 원래의 예수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허하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여성상은 기독교론(christology)은 물론 교회학(ecclesiology)에 대한 흥미로운 곡선(trajecory)을 제시한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정의와 해방을 선언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 (사 61:1-3에서처럼) 그 멧세이지는 여성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동등한 존재로 포함시키고 확인하고 받아드리는 예수님의 특수한 처사는 소외된 자(marginalized)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우선권(preferance)을 주시는 그의 전반적인 포함(inclusion)의 일부일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을 남성들과 함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그의 부르심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반대파 종교지도체제의 눈에 분명히 거슬렸을 것이다.⁹⁴

둘째로, Father God 언어는

⁹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2.

⁹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3.

⁹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4.

5. 누가본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The Lukan Text: Luke and Acts)

배경

누가와 사도행전은 연속(in series) 해서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소식(good news) 즉 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좋은 소식(good news)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길” (the "Way")이 예루살렘에서 희랍-로마(Greco-Roman)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이동한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장은 사도행전의 첫 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각각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그의 존재의 증거, 제자들의 파송, 그의 승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두 책은 대개 평행(parallel)한다....⁹⁵

누가복음은 복음서 기록의 중간시기쯤에 기록되었다. 즉 마가복음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요한복음 이전에 기록되었다. 누가복음의 세가지 관심사는 첫째, 둘째, 셋째 (P. 97-98)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이방인이나 로마사람들이었다. 누가는 기독교의 보편성(universality)을 보여준다. 기독교를 “갑작스런 출현”(upstart) 혹은 “신 유행”(newfangled)으로 불신하는 로마에 하나님의 고대(ancient)의 계획과 목적의 완성으로 제시한다.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보는 이들에게 누가는 로마제국을 이 새로운 운동의 보호자로 제시한다.⁹⁶

누가는 의사이며 바울의 동역(associate)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에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동행한다. (골4:14: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이방인 기

⁹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7

⁹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9.

독교인으로 주후 70년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누가의 공동체는 굉장한 부자와 사회에서 극도로 소외된(marginalized) 사람들 모두 있었던 것 같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1)나 부자와 나사로(눅 16:19-31)비유는 누가의 공동체의 부자들이 자기들 안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이 여성들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대한 그의 관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⁹⁷

누가복음의 여성들

누가복음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복음이라고 알려졌지만 깊은 연구가 그렇지 만도 아니함을 말하는 학자들이 늘었다.

누가복음의 여성에 대한 개요(overview)는 다음과 같은 기적기사에 많이 나타난다: 시몬의 장모(눅 4:38-39), Nain의 과부(눅 7:11-17), 회당장의 딸(눅 8:40-42, 49-56), 혈루증 걸린 여인(눅 8:42-48). 허리 굽은 여인(눅 13:10-17), 예수를 따른 여인들(눅 8:1-2, 23:49), 그리고 "남-녀 parallel"에서 천국비유(눅 13:12-21; 15:4-10; 18:1-14). 누가에서 과부의 이야기는 특별히 중요한데 주로 긍정적인 면에서 모범으로 나타나는데 Anna(눅 2:36-38), Zarephath의 과부(눅 4:25-27), Nain의 과부(눅 7:11-17), 불굴의 과부(눅 18:1-8), "위선자"의 희생물(눅 20:47), 후한 과부(눅 21:1-14). 누가는 과부들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는 누가의 공동체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과부들을 소홀하게 대할까봐 그런 것 같다.⁹⁸

누가의 희랍적인 전승(heritage)이 복음서에 많은 여성들을 포함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희랍여성들이 팔레스타인 계 유대여성들보다 법적인 자유를 더 누렸고, 로마여성들이 비교적 제일 많은 법적 그리고 사회적 해방을 누렸다. 누가복음은 아마도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서 형성되었을 것이고(shaped) 거기에는 많은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층에 있을 것이고 많은 여성들이 교리문답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여성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다.⁹⁹

사가랴 와 엘리사벳

누가복음은 사가랴 와 엘리사벳로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눅 1:6) 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에 불임이던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것으로 보상을 주신다.

마리아 (Mary)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눅 1:27)는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눅 1:27).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선언서를 말하는(눅 1:46-55) 유일한 여성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가의 이상적인 믿음의 여성상이다.

안나 (Anna)

과부 안나는(눅 2:36-38)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 하니라." 고 기록된 대로 그녀는 예언자로 불리

⁹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99-100.

⁹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01.

⁹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01.

왔다.

이 세 여성들은 나머지 누가복음 기사에서 여성들의 예시(prefigure)가 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지만 그들의 충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된다.¹⁰⁰

시몬의 장모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눅 4:38-39).

나인성의 과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눅 7:11-17). 여기에서 증점은 이 여인은 외아들을 잃어 슬퍼했고 남편이 없으니 즉 남자 보호자가 없음으로 법적인 신원(identity)이 없었다. 그러므로 아들을 잃음은 이 과부에게 이중 부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함은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죽은 아들을 사리셨음은 그녀의 아들을 되돌려 준 일일 뿐 아니라 그녀를 사회적인 지위에(place in the accepted social order) 다시 회복시킨 일이 된다. 이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께서 그 여인 개인에 대해 자비심(compassio)을 보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뺏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자와의 사회적인 관계(social relationship to men) 안에서만 권리가 주어졌던 모든 여성들의 무언의 건본(silent representative)이다. 예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위해 하신 일은 곧 그녀를 사회질서로 돌려보낸 일이다. 그는 그녀를 어머니의 역할에다 회복시킨 것이다.

¹⁰¹

예수를 따라 함께 여행한 여성들은 매우 자유스러운 여성들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여행하기 위해 가정과 가족을 떠났고 예수께서도 이를 허용하신 것 같다. 이는 Ben Witherington이 제안하는 바대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여성들이 자신의 선교에 참여하고 증인이 될 것을 의도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의 아내 요안나는 highly placed woman 이었다. 청지기(Steward)는 그의 주인의 가사와 재산의 총책임자였다. 그래서 요안나는 사도행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저명한 고급의 여성을 대표한다. 수산나는 히브리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예수의 선교와 초기 기독교 운동을 특징하는 사회적인 차별/특별대우(distinction)의 벽을 깬 사람들이다.¹⁰²

구원을 받는데 대한 이 여성들의 반응은 제자도의 표준반응(standard response of discipleship)인 예수를 따르는 것과 자신들의 자력을 털어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것(provide)이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눅 8:3).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남자 제자들이 배우는 것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을 “섬겼다”(serve). 이는 제자도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여기서 섬김(provide)을 말하는 희랍어는 diakonoun인데 이 단어는 diakoneo (“to serve,” “to wait on,” “to serve as a deacon”)에 그 어원이 있다. 복음서들이 쓰여질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는 “집사(deacon)”이라는 직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¹⁰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01-103.

¹⁰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04.

¹⁰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05.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행 6:1-6). 이 집사직은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인도에도 참여한 것 같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눅 8:1-3)를 여성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섬긴 전통인 여자의 접대역할로 읽지만 "집사"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특수한 직책을 수행함을 말한다. R. J. Karris가 지적한대로 누가복음에서 diakone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75%는 식탁에서 접대함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herald"와 "messenger" 사이에서 섬김을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의미한다. Karris는 눅 8:1-3의 여성들은 예수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재원을 사용했다고 믿는다.

눅 8:1-3은 예수의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선교역할에 대해 유력한 서술(description)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12 제자에게 가까운 지위(status)를 주고 있고 그들을 semitechnical term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제시되는 누가의 기독교론은 사실 여성들이 행한 섬김(service)의 역할에다 가치(dignity)를 더해준다고 본다.¹⁰³

마리아와 마르다

눅 9:51-62에

마르다가 한일은 단순히 상차리고 시중드는 일이 아니라 희랍어로 섬기다(serve - diakonian)는 누가복음에서 중간역할, 대변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도력과 선교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함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에서든 같은 단어 diakonian은 8번사용중에서 6번은 교회에서의 지도력과 복음선포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W. Carter가 지적하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선교는 파트너쉽(partnership)의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위해서 포함시켰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들은 것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각각 다르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둘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끼어있었다. 마르다는 잘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선교의 근원인 예수로부터 그녀의 마음이 분열되었다. Mary Rose D'Angelo도 Carter와 동의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약에서 일연의 여성선교자들의 한쌍이다. 이 두여성은 필경 가정교회를 지도했을 것이고 둘다 예수의 제자(students)이다. Schussler Fiorenza는 마르다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마르다의 diakonian은 그녀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에서 성직자 지도층을 의미하는 전문용어임에 동의한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실히 말하듯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마르다는 확실히 기독교론적 믿음(Christological faith)을 가졌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녀가 예수를 "주" (Lord)라고 부른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녀는 완전한 기독교론적 신앙고백을 한다 (요 11:27).

마리아도 적절한 제자도를 실천하지만 누가의 기사에서는 서로에게 빼격거린다. 결국 가정교회를 이끄는 여성을 침묵케 만들었다. Schussler 생각에는 누가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그리고 목회상의 양극화를 강화한다고 한다. 여성들을 남자가 가르치는 기독교 강의를 듣는 역할에 한정시킨다고 생각한다.¹⁰⁴

복음서 학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성경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저자의 신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누가복음에 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누가의 목적이 제외된자들(여기서는 여성들)을 포함하기 위함이고, 기독교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시위 하기위함, 혹은 어거스틴의 결혼법령의 공포 후에 로마제국 사회의 일반적인 동향과 교회의 관행사이에 융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들의 역할을 제한하기 위함인가? 누가복음 학자들, 특히 여성신학자들은 눅 10:38-42를 위에 명시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읽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두 가

¹⁰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06.

¹⁰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0.

지 포인트에 동의한다: 첫째, 본문의 전통적인 이해를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기사는 예수운동이 전개되던 첫 단계에서는 여성들이 그 안에서 활발히 지도자 역할을 했다. 여성들은 선교와 학습(study)에 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눅 10:38-42는 가사일을 학습에 대립(a gaisnt)시키는 본문이 아니고,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보다 더 자유스러운 활동과 대립시키는 뜻의 본문이 아니다; 본문은 가사일과 정신노동(headwork)사이에 문제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 본문에는 식사(meal)이라는 말이 없다. 마르다가 식사준비를 한 것처럼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0절에 마르다의 일을 diakonian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잘못 해석한 것을 고쳐주는 일을 해야 한다. 누가는 교회의 선교에 여성들의 활발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눅 10:38-42는 오히려 여성들의 목회준비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¹⁰⁵

허리굽은 여인

이여성을 허리가 굽어 전혀 펴지 못했지가 18년이나 되었다. 하루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허리를 펴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이다 (눅 13:10-17). 그 여자가 불결한지 알 길이 없었으나 그 여인을 병에서 해방시키신다. 회당의 지도자들이 불쾌하게 느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행해서 안식일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반응은 눅 13:15-16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불행한 자 특히 여성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시는 또 하나의 본문이다. 주님께서 그녀의 몸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종교 공동체(사회)에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다.¹⁰⁶

여성들도 최후 만찬에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만찬에 12명의 남자사도 이상 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눅 22:1-38). 이런 견해의 가장 광대한 소개는 Quentin Quesnell의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 여성들”이란 글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입성 때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전제하에 Quesnell 은 마지막 만찬에서 가르쳤다는 내용에 오로지 12사도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다. 눅 22:14의 내용이나 상황(context)에 12사도만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없다. 사실은 눅 22: 14에 “사도들”이란 단어에 몇 가지 본문의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고대 문서에 “사도들”이라고 했던 것을 후에 12 (Twelve)라고 고쳤다. 눅 22:14에는 NRSV 번역에 “사도들 (apostles)”이라고 번역했다. 눅 22:26에는 너희중에 가장 큰자는 가장 어린자가 되고,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좋던지 안 좋던지 간에 섬기는/시중드는자 (serve)는 항상 여성들이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이들과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있었을 것이고 시중든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눅 4:39; 8:3; 10:40). 더군다나 22:28에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라하였으니 만찬손님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다.¹⁰⁷

가장 신빙성 있는 논쟁은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다는 점에 있다. (눅 22:13) 유월절 식사는 항상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이다. Joachim Jeremias 도 마지막 만찬에

¹⁰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0.

¹⁰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1.

¹⁰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2.

여자들이 부재했다는 사실에 놀란다.¹⁰⁸

여자들과 주님의 십자가형

십자가 형 후에 여성들에 대한 누가의 세세한 제시는 마지막 만찬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눅 23:55-56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같은 여성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빈무덤을 발견하고 두남자들(천사)에게서 멧세이지를 받는다. 무덤에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감질나지만 누가의 견해로는 여성들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다고 추측하는 것이 그리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고난기사 전체를 통해 그런 징표가 분명히 엿보인다. 누가의 것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애도를 포함한 유일한 고난기사이다 (눅 23:27-31):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들의 애도는 분명히 죄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랍비를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자신들을 이례적인 친절과 포용(inclusiveness)으로 대하던 한 남성애도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겠는가?¹⁰⁹

십자가 밑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눅 23:49) 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르다 (follow-synakoloutheo)" 는 눅 5:11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에서 제자도(discipleship)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였다. 눅 23:49과 55절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그를 따랐다”) 눅 8:1-3을 상기시킨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눅 24:1-12에 갈릴리에서 온 같은 여인들이 무대중심에 등장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란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람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 가니라.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로부터 말을 듣는다 (4절).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6-8절). 명백히 그들은 “가서 말을 전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¹⁰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2.

¹⁰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3.

않았다 (11절). 남자 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의 보고는 매우 흥분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의 수다(babble)에 지나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여객들은 그 여자들의 증거를 인용했지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눅 24:22-24).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한 주님의 경험을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에게 전한다 (눅 24:22-24). 행 1:14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에서 확실히 입증한대로 여성을 포함하는 이 같은 그룹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어(눅 24:36-49) 못 박혔던 몸을 보이시고 구은 생선을 함께 잡수신다. 이들 전부에게 주님은 24:48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 선언하신다.¹¹⁰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은 탁월한 역할을 한 여성과 더불어 시작해서 여성과 더불어 끝난다. 그리고 여성들이 초점을 이루는 몇 개의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있기도 하다. 이 여성들에 대한 기사d의 해석에는 여러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다. 누가복음에 있는 설교 자료(discourse material)를 대강 읽어도 여성들과 여성들의 활동 범위에 대한 놀랄만큼 많은 언급에 접하게 된다. 누가복음의 예수는 가사생활(domestic life)과 “여성의 활동”에 대해 광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여성의 활동에 대해 19번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정돈된 것을 여자의 일로 알고 있다(눅 11: 25-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는 또한 빵을 굽는 일에 대해 지식이 있고 (눅 12:1; 13:21의 누룩에 대한 언급을 보라) 그리고 눅 17:35에 [식사준비를 위해] 땃돌을 가는 일도 알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모성 상(maternal image)도 있다. 그는 눅 7:28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는 기사에서 인간의 처지를 “여자에게서 남자“ 의 처지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날개 밑에 새끼를 모아 품는 어미닭과 비교하기도 했다 (눅 13:34: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는 활란 때의 임신한 여자들과 젓 먹이는 어미들에 대해 특별히 동정한다(눅 21:23).¹¹¹

예수께서 설교하고 예증(illustrate)하기 위해 선택한 히브리 성경본문[구약성경]은 흔히 여성을 포함하는 기사였다.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암시(allusion)는 엘리야 시대의 과부에 대한 것 이었다 (눅 4:25-26: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렘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의 법해석과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 자신의 선언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선호하셨다. 눅 16:18에서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남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간음함이라고 하셨다. 눅 20:27-40에서 여자를 여러 형제들에게 양도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결혼관에 대해 말하고 그 토론을 부활한 생의 성격으로 높였다. 예수께서는 과부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다. 그는 눅 18:1-8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맞선 과부를 암암리에 칭찬하셨다. 그리고 그는 눅 20:47에 과부의 가신을 삼킨 서기관을 비판하신다.¹¹²

누가복음을 비판적으로 볼 때 누가를 역사가라고 보면 그의 복음에 포함된 여성들의 이야기

¹¹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3.

¹¹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4.

¹¹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4.

를 여성주의자 (pro-women)의 글로 읽을 수 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예수의 생애와 선교와 가르침에서 여성들을 현저하게 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신학자로 보고 그의 복음안의 자료들을 redactionally 읽는다면 (편집상의 수정과 삽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비교해서) 여성에 대한 누가복음저자의 제시는 그리 쉽게 분류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서에서 제시한] 여성들의 역할이 제국의 사회에서 허용될 만한 것들인 것 같다. 누가는 여러 여성들이 그의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였음을 시사하면서 누가는 여성의 기사를 배가한 한편 (multiplied) 그들의 이야기에서 여성을 완전히 당연(predictable)하고 대개는 말없는 활동(silent activity)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 여성에 대한 누가의 견해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그가 신약, 즉 사도행전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신학자 Jurgen Moltmann,은 여자들과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들은 그의 죽음을 목격한 마지막 사람들인 동시에 그의 부활을 목격한 첫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자들은 **중국에서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사역에서도 그에게 가까웠다. 많은 여자들은 환영받았고 치유 받았다. 공관복음서에서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행한 일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수의 여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가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죽음을 '인식'했다. 즉 그들은 그의 죽으심에 동 참한 것이다. 그들은 남성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여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남자들에게 전했다. 이러한 여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에 **가까웠다**. 이들이 없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인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예수의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막10:45)-정치적인 지배와 통치에 대한-여자들은 **다시금** 그에게 가장 가까웠다(막 15:41). 지배와 노예화가 없는 상호 섬김의 친교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여자들이 예수의 섬김과 죽음과 부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남성이었다고 하는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에서 여자들은, **만물과 모든 환경들에 대해 새로운 창조가 자유롭게 해준 참된 인간 실존을** 증명해 주었다.¹¹³

¹¹³ Jurgen Moltmann, *The Way of Jesus Christ* (Minneapolis: Fortress Press,1993),146-147.

사도행전의 여성들

사도행전은 누가의 신학적인 견해에서 전해진 이야기이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예수안에서 행하신 이야기를 완성한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 약 80-90년경에 누가복음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보다 훨씬 적은 수의 여성들이 나타난다. 조심스럽게 읽어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의도적으로 여성들을 중심부에서 제외한 것으로 여겨진다. 행 1:14에 다락방에 있었던 여성들 중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2류였던 것 같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설교는 주로 남자를 향해서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 형제, 남자, 아버지 등 독점적으로 남성으로 썼다. 공적인 연설에서 남성형을 썼다는 사실은 누가의 입장을 잘 설명한다고 보겠고 공적인 세계는 남성들의 것이고 가사의 영역은 여성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찍이 행 1:14에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여성들이 나타나지만 15장의 예루살렘 의회에는 여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예수의 선교에 함께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틀어 충실하지만 나중에 공공한 선언(public proclamation)에서는 적합하지 아니했다 (누가의 부활기사에서 여성을 증인으로서 도외시 되었다.¹¹⁴

사도행전은 여자의 이름 12명을 포함한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행 1:14); 삽비라(행 5:1);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행 8:27); 다비다(도르가- 행 9:36); 가정교회의 인도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행 12:12); 로데라 하는 심부름하는 노예(행 12:13); 상업하는 여인이고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루디아(행 16:14); 다마리, 아텐의 개종자(17:34); 선교사 부부의 아내 브리스길라 (행 18장); Diana/아테미, 에베소의 신상(행 19:24);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행 24:24); 아그립바 왕과의 부인 버니게(행 25:13, 23); 부가해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교회의 과부들에 대해 언급하고(행 6:1-6), Pisidian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행 13:50); 디모테의 유대인 어머니 (행 16:1), 가이사라의 빌립의 4 예언자 딸들(행 21:8-9)에 대해 언급한다. 이 여인들은 기혼, 미혼, 전문인, 가정부, 유대 여인, 희랍 여인, 로마 여인, 여신, 누이, 어머니, 장모, 예언자, 선교사, 선생, 여왕, 노예 등 놀랄만큼 다양한 배경을 대표한다. 이러한 다양성들은 초대교회의 여성들에 대해서 일반화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¹¹⁵

브리스길라

는 그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행 18장) 시리아와 에베소에서 선생이요 선교사였다. 브리스길라는 분명히 바울의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다 (롬 16:3-4; 고전 16:19). 그런의미에서 누가

¹¹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7-118.

¹¹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9.

의 명단에서 빠질 수가 없다.

빌립의 딸들은 예언자였다(행 21:9).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지위(office)”로 명시되었다 (고전 12:28-29; 엡 4:11-12를 보라). 누가복음은 남녀에게 예언의령을 붓는 요엘서 인용과 함께 연다는 점에 주시하라. 그러나 이들 여선지에 대해 언급할 때 그들은 침묵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다른 여자, 예언자의 영을 가진 빌립보 중 (행 16:16-19)도 바울이 침묵시켰다.

다비다

다비다는 “제자”라고 불리웠는데 그녀는 그 지방의 과부들(행 9:36)의 주문을 책임졌다. 마가요한의 어머니와(행 12:12)와 루디아(행 16:14)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자기집에 모이도록 허락했으니 아마도 그가 가정교회를 인도했을 것이다. 각각 다른 그룹에 따라 그 지도자에 따라 초대교회의 지도역에 많은 다양성이 있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행한 지도역할도 다양했던 것 같다.

116

사도행전에서 여성에게 초점을 두는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행 5:1-11; 9:36-43; 16; 18:1-3, 18-19, 24-28)을 Ivoni Reimer 가 연구했다. 그러나 여기서 다비다(행 9:36-43)의 이야기와 루디아(행 16:11-15, 40)를 살피고자 한다. 이 두여성들은 자신들의 신앙공동체를 후원자로서 섬겼으며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다비다의 이야기는 (아람어로 "gazelle"이고 그래서 희랍어로 도르가 ("Dorcas" - gazelle 혹은 deer"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행 9:32-35에서 애니아라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행 9:36-42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린다. 이야기에서 두가지 관점이 특별히 중요하다: 행 9장 36절은 다비다를 “제자-disciple”라고 칭한다.mathetes의 남성형은 제자, 학도, 혹은 따르는자 라는 뜻인데 복음 전도자들이 12 사도를 포함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선택한 용어이다. 신약 전체에서 이 단어의 여성형 mathetria 는 사도행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성경에는 누가 그리고 몇 명이나 제자(disciple)인지에 대해 혼동한다. 여기에 대해 Elisabeth Schussler 는 12사도를 일치성 부족은 "12 - Twelve"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수이고 꼭 예수를 따른 12 남자 개인을 의미하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마가는 12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충실한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겪은 것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mathetria라는 용어는 제 2세기 중반에 시리아에서 쓰여진 외전의 복음인 베드로의 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쓰여있다: 이른아침 주의날에 제자 (여성형 희랍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여자친구들과 함께 예수가 누웠던 무덤에 왔다.“ Coptic Gnostic 문헌에 mathetria, mathetai, 그리고 apostoloi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인도하는 목록에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가장 보수적으로 읽어도 다비다가 예수의 추종자였다고 읽을 수 있다. 다비다가 예수님과 가까웠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9:38-39에 베드로가 그를 부르러 온 사람들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즉각 그녀를 도우러 가는 점에 유의하라. 그가 다비다를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그녀도 예수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고 그를 섬겼을지도 모른다. 다비다의 일은 눅 8:1-3의 선교한 여인들의 활동 같은 일에 종사했을 것이다. 사도행전의 희랍본문은 9:38에 여러명의 여자 제자들이 Joppa에 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¹¹⁷

다비다는 다른 과부들을 돌보며 데전 5:16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Joppa의 교회들은 다비다를 그녀의 “자선행위(alm deeds and acts of charity)”를 높이 평가했다.

¹¹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19-120.

¹¹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1.

같은 용어를 고넬리스에 대해서도 사용했다. 다비다는 행 6:1-6에 남자가 하고 있는 같은 일을 한 것이다. 여기서 그런 일을 diakonia 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전문용어가 다비다를 향해 쓰여지지 않았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제자도의 모범이라 하면서도 그녀가 하는 일을 선한일, 자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누가는 같은 일을 남자가 했으면 이를 목회 (ministry)라고 불렀다. 누가가 다비다에게 지도역할의 용어를 쓰지 아니했으나 그녀는 잘 알려 졌고 그녀에 대한 기억은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에 깊숙이 박혀있었으므로 누가는 그녀를 사도행전 기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¹¹⁸

행 6:1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루디아

베드로의 선교에 있어서 다비다가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다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루디아가 귀중한 여성지도자였다 (행 16:11-16). 그녀는 유럽 땅에 교회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바울은 그의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안식일 날 성문밖에 기도처가 있다 하여 찾아 나섰다가 여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처 "a place of prayer (proseuche)는 역사가 Josephus에게 그리고 비슷한 문헌에 회당(synagogue)로 이해된다. 바울은 언제나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회당에 들렀다 (행 13:14; 16:13; 17:16-17). 그러므로 이 기도처라는 곳이 회당이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¹¹⁹ 이기사는 전 신약성경에서 여성들만이 모인 것을 제시하는 단하나의 본문이다. "모이다 (gathered)"-synerchesthai는 용어는 흔히 회당과 관련해서 쓰였다. (고전 11:17-34 과 고전 14:23-26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만찬에 다 모여음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거기에 여성들 사이에 "앉았다, sit". 이는 가르치는 랍비의 자세이다. 행 16:13-15는 그러므로 Diaspora 회당에 여성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자료가 된다.¹²⁰

거기에 모인 여성들 중에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녀에 대해 3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로,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 a porphyropolis, 라 했으니 전문인이었다(행 16:14).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 시는 자색물감으로 유명한 것이었다. 그당시 직물(textiles)재배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었다. 그리고 그 직업의 일부는 생산한 직물을 판매하기 위해 여행하는 일이었다. 둘째로, 행 10:2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라고 서술한 누가는 이번에는 루디아에 대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라고 서술했다 (16: 1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 하는자"란 용어는 유대교를 받아드리고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말할 때 사용한 말이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유대교 전통에 대해 신학적으로 박식(theologically literate)한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이미 박식한 루디아에게 설교했다. 셋째로, 루디아는 자기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독신이었거나 과부였던 것 같다. 자주물감을 드리는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직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루디아의 식솔 수는 많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개종했을 때 꽤 되는 수의 기독교인 공동체였을 것이다. 바울 선교당시에는 가정교회가 전형적(typical)이었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도자가 될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제 1세기의 부유층 여성들은 자기 집을 열어 예배하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빌립보에서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자기 집에 묵도록 대접한 일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다.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일은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 제시된다.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보호한 일이다.¹²¹

¹¹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2.

¹¹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2.

¹²⁰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3.

¹²¹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3.

바울의 첫 번째 유럽교회는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마케도니아에서 남자들이 교회를 시작하지 아니했지만 충실한 여성들이 기도모임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수용하여 그의 유럽의 첫 번째 교인이 된 것이다. [이미 존재했던 여성의 기도모임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중추가 되어 준 것이다.] 그리하여 루디아의 집은 새로운 기독교인들의 예배처소가 되었다 (행 16:15, 40):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즉 루디아의 가정교회에 들러 인사하고 떠났다]. 바울의 빌립보서는 아마도 루디아의 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는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구절이 없다.¹²²

바울은 루디아와 같은 여성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 fellow workers”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유럽에서 바울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고 희랍도시 여성들 사이에서 그의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다비다 처럼 그녀는 기독교인 공동체의 후원자였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후원한 누가의 여성들 속에 끼는 여성이다.¹²³

기독교는 여성들과 노예와 무기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권세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눅 1:52)는 낮고 가난한 자를 위한 해방의 message를 주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오순절에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초대기독교 공동체의 다락방 모임에 참여했고,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참여한 구룹 속에 여성들도 참여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로아에서, 아텐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여성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응했고, 자기들 교회에서 지도자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 누가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청중들도 이런 능력있는 여성들을 알고 있었다.¹²⁴

그러나 로마 청중들에게 기독교를 전함에 있어 이런 유명한 여성들이 문제가 되었음을 사과하는 것이 누가의 목적의 일부였을 것이다. 1세기 후반의 사회와 로마법이 전반적으로 가정밖에서의 여자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누가는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으나 로마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방법으로는 하고 싶지 아니했을 것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여성의 이름을 거들기는 하나 그들을 침묵시키고 교회에서 여성들의 지도력을 제한 혹은 빼는 방법을 사용한듯 하다. 예를 들면 다비다와 루디아의 기사에서 누가는 여성들의 교회지도자로서의 공헌에 대해서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의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부(wealth) 에 중점을 두었다. 누가는 로마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소개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다.¹²⁵

결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조심스럽게 읽어 보면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여성옹호자라고 단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는 모순에 빠진 것 같다. 그는 예수의 선교와 기독교를 전하는데에 여성들의 공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공동체도 이런 사실과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한편 그는 점점 보수화 되어가고 점점 많은 여성교인들이 생겨나는 로마제국에다 복음을 전해야 했다. 누가는 여성들의 예언이나 요술이나 그리고 여자들에게 공공한 지도력을 인정하는 그리고 로마제국 입장에 반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드리게 하고 싶어서 로마 사회가 행사하는 예의 범절을 지켰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많은 여성을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예수 공동체에서와 초대교회에서의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던 것 같다. August 의 개혁은 로마에서 법적인 결혼관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속한 가정의 영역은 남자들이 통제함을 보증함으로써 공중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누가는 이러한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여성들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의 승인

¹²²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4.

¹²³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4.

¹²⁴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5.

¹²⁵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6.

을 제일 많이 받은 여성들을 침묵시켰다(눅 7:36-50; 10:39-42); 처녀성을 강조하고 (눅 2:36-38; 행 21:9); 기독교여성들은 로마인들이 비 로마적인, 이방종교로, 위험한 발상으로 보는 예언하는 활동을 제한시켰다.¹²⁶

몇가지 수준에서 누가는 여성에 관해 mixed message를 준다. 그의 글은 여성교인들의 덕성(edification)을 높임과 그들을 제지함 둘 다 목적으로 삼은 것 같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누가도 해방신학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성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에서 여성들을 남자에게 종속시킨다. 누가는 신학적으로는 동등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현상유지(status quo) 윤리를 장려하고 있다.¹²⁷ 이는 많은 현대 남성들과 비슷하다. 여성의 동등성을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남성들이 집안에서는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고 인권운동가들이 가정에서 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론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인정하기 쉬우나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는 싫어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바울이나 누가의 mixed message 나 행동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실천과 신학에 근거해서 여성의 교회 안에서와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도력에 대한 동등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누가가 그토록 여성에 대한 동등성을 제한하고 감추려고 애썼지만 그가 감추려던 진실은 드러나고야 만 것이다. 말하자면 누가의 진실은- 초대교회에서의 여성의 중요성과 유명도는- 임시적으로 감추려는 노력을 뛰어넘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조심스럽게 누가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그가 제외하려고 노력하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야 만다. 궁극적인 분석에 있어서 복음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1세기의 사회제도에 매이지 아니했다. 눅12:2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대로 되었다. 누가가 어두움속에서 말한 것이 새로운 빛 속에 들어났다. 그가 단쳐진 방안에서 속삭인 것이 제1세기 가정교회의 선조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여성들의 지붕꼭대기에서 선포한 것이 되고 말았다.¹²⁸

6. The Deutero-Pauline Texts

사도 바울과 여성

한인교회에서는 예수그리스도 보다 바울의 반여성적인 본문들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데에 많이 사용하므로 여기서 바울의 여성관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겠다.

본문들은 표준새번역에서

교전 11: 3-16: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

¹²⁶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7.

¹²⁷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7.

¹²⁸ Bonnie Thurston, *Women in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s Pub. 1998), 127.

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그는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그는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고전 14:3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골 3:18-19: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엢 5: 22-33: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큼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디전 2:8-15: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도 2:4-5: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깨우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성과 관련해서 원칙을 주는 본문들

갈 3:28:

.....